

월간 증현

예수는 그지혜와 그키가 자
라가며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79 3월호

—환경과 질서—

환경이라는 말과 질서라는 말은 매우 관련성이 높은 말들인 것 같다. 요즈음은 잘 볼 수가 없는 것 같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정부 각 기관이나 또는 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게시판이나 정문 같은 곳에서 “3대질서확립”이라고 써놓은 게시물을 볼 수가 있었다. 3대질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곧 환경질서, 행동질서, 그리고 정신질서를 말하는 것이었다. 환경에 질서가 있어야 하고 행동에 질서가 있어야 하며 물론 정신에도 질서가 있어야 하겠다는 말인 줄 안다. 대단히 좋은 말이요 좋은 방침이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다 질서가 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요즈음은 택시 잡아 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택시 정류소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차를 기다려 본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느끼게 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질서(order) 문제인 것이다. 도무지 질서가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제멋대로이다. 더군다나 요즈음 택시 합승제도가 허용되고부터는 더욱 더 말할 수가 없다. 환경에도 질서가 없고 행동에는 질서가 없고, 정신에도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으니 곧 무질서이다. 무질서는 어지러움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이란이라는 나라를 보아 왔다. 그 나라가 왜 그 모양인가 싶은 것이다. 참으로 질서가 큰 문제이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을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신 적이 있다. (고전 14:33) 그러면서 고전 14장 마지막 4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Let all things be done in order) 우리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질서가 없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봄으로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내에 파벌이 있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요, 나는 아볼로

에게 속한 자요,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요 하면서 서로가 분쟁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된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다. 내부적 질서가 무너져 있었다는 말씀인 것이다. 요즈음에 와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환경(environment)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교육학에서도 그러하다. Lewwin 같은 사람은 환경 속에는 행동의 힘이 있다고 하였으며 행동과정은 이 힘의 작용에 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Watson이나 Baldwin 같은 연구가들은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말하기를 환경과 인성(personality)과의 관련성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서 환경이 퍼스낼리티 형성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고 지적하여 주었다. 그 중에서도 Cattel 같은 사회 심리학자는 학교 환경과 학생의 인성과의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교에서의 외적 환경 곧 물리적 환경 또는 인간관계가 학생들의 인성 발달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작년도부터 환경정리운동의 한 작은 일환으로 휴지줍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회 곳곳에 “성전을 깨끗이 합시다.” “휴지를 버리지 맙시다.”라는 표창을 써 붙여 놓았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출선해서 휴지줍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교회당 이곳저곳에 휴지 조각이 떨어져 있다. 심지어 성전 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 환경을 정리한다는 것을 굉장한 운동처럼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극히 작은 휴지 한장 줍는 거기에서 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곧 환경정리가 되는 것이다. 환경이 정리되어야 생활이 정리될 수 있다. 환경에 질서가 있어야 생활에 질서가 온다.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시었고 모든 일을 질서대로 하라고 명하셨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한 것이다.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3대 목표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7 권 제63호

월간 충현

* 차 례 *

권 두 언	환경과 질서.....	주 간 · 2
이달의말씀	산 돌이 되자.....	김창인 · 4
지상 특강	주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임승원 · 6

특 집 / 1979년의 주교 교육

좌 담 회 /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	편집실 · 9
교육위원회 / 충현 주일학교 운영계획.....	편집실 · 16

특 별 기 고	3.1운동의 현대적 재 조명.....	김차생 · 18
편집실칼럼	기미년.....	고재원 · 20
찬송가감상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김중석 · 20
도 서 정 보	2월에 구입한 도서.....	도서실 · 21
책 소 개	피난처.....	김연이 · 21
기독교윤리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김하진 · 22
주간의만나	시편 57 · 58편.....	김창인 · 24
독 자 의 글	성 발렌타인의 날 소감.....	최정만 · 25
독 자 의 글	「이사람 그 누가」를 읽고.....	김수진 · 25
선 교 월 보		해외복음선교회 · 26
구 역 소 식	오늘의 우리기도.....	편집실 · 28
	새교우 · 별세 · 결혼명단.....	
구역장수첩	구역장의 실무 교육내용.....	김재창 · 29
구 역 공 과	제 17 · 18과.....	이성봉 · 30
교 회 소 식		32
편 집 후 기		34
이렇게 말한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가 가능한가.....	김재창 · 35
실로암 못가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김양선 · 36

표지설명: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주일학교 교육의 목표로 정하고 오늘도 우리는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 유치부의 주일 낮 예배 모습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24:1



산돌이 되자

성경 / 뱀전 2:1-10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담회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내용은 산돌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임금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가 되고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산돌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 제일의 장수가 있었는데 40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갈 협박을 해댔습니다. 여러사람 희생시킬 필요없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구든 한사람만 나와 자기와 결판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루 하루 사기가 꺾여 이제는 골리앗만 나타났다 하면 아예 숨을 곳, 도망갈 곳만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해 보기도 전에 벌써 전쟁에 진 사람들처럼 풀이 죽어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영감님의 여덟째 아들인 양치는 목동,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상관의 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위해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뇌성벽력과 같은 소리로 누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더러운 욕을 막해 댔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바들바들 떨 뿐 누구하나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별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런 놈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니 이럴 수가 있나?” 하며 다윗은 분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일개 목동으로 무서운 험센 장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울왕이 주는 갑옷과 무기를 집어 던지고 시냇가에 가서 맨몸매끈한 돌 다섯개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물매와 양치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조롱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뭐 개인줄 아니? 막대기를 들고 나와 어찌자는거냐? 내 너를 새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은 “너는 네 힘만 믿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런데 내가 널 새밥으로 만들어? 어렵잖아. 내 너를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하며 주머니 속의 돌 한개를 물매에 끼워 빙글빙글 돌리다가 힘껏 던졌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 앞에 골리앗은 썩은 나무토막처럼 쿵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의 수 많은 돌 가운데 다윗이 주운 돌은 택함 받은 돌들입니다. 그 가운데도 물매를 떠나 공중으로 날아가는 돌은 이스라엘을 살린 돌입니다. 많은 돌들이 돌은 정말 귀한 돌이 되었습니다.

한강에는 모래도 많고 자갈도 많습니다. 자동차에 실리워 건축 공사장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돌은 아파트를 짓는 데 쓰이고 어떤 돌은 술집을 짓는 데 쓰입니다. 그러나 강가에 굴러다니던 똑같은 돌이지만 충헌교회 새 성전을 짓는데 쓰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 중 택하심을 얻어 부르심을 받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하여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달라고 회개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2.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하루는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잠이 깨자 꿈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나라 안의 모든 점장기와 박사를 불러 꿈 해몽을 하라고 했더니 해몽은 고사 하고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조차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점장기와 박사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야 말로 억지여

목군의 첩보였읍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느브갓네살 왕 앞에 섰읍니다. “대왕님, 대왕님이 꾸시고 있으신 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 주셨읍니다. 대왕님이 꾸신 꿈은 이런 꿈이었읍니다.” 하며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자세히 말했읍니다.

그 꿈은 천지를 덮을만큼 큰 신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 있었읍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대지 않은 이상한 돌 하나가 철과 진흙이 섞인 우상의 발을 치니 신상이 몽땅 가루가 되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인지 모를 무서운 바람이 부니까 타작마당의 겨가 날듯이 바람에 날려 우상은 사라지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천하에 짝 차는 꿈이었읍니다.

그러자 느브갓네살 왕은 “그래, 그래, 맞았어, 바로 그 꿈이야 그러면 해몽도 좀 해 주려므나.” 그때 다니엘은 또 해몽을 했읍니다. 우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며 후에 은같은 메데·파사, 놋같은 헬라, 철같은 로마 나라가 일어나며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면 열발가락처럼 수없이 많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철과 진흙처럼 부드러운 정치와 강한 정치가 서로 섞이고 인종이 서로 섞여 서로 물고 찢고 싸우게 되면 그 때에 든 산돌이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흩어버렸듯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말했읍니다.

이 산돌은 누구십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심판의 구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자세 한알처럼 업신여겼는데 악마의 세력을 부서뜨린 예수님은 산돌로서 오늘날 복음으로 세계를 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산돌, 천국을 건설하는 산돌이 됩시다. 우리의 육체는 약합니다. 암만 보약을 먹고 좋은 것을 덮어 보아도 때가 되면 질그릇처럼 깨지고 때가 되면 벌레먹은 고목처럼 썩고 쓰러질 연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모실 때 산돌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산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산돌이 된다는 말은 자신을 이기고 악마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말이며 산돌이 된다는 말은 비록 우리의 몸뚱이가 부서진 질그릇 같고 벌레 먹여 넘어진 나무토막 같지만 어려운 주위환경을 이기고 가정, 직장, 교회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성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같은 산돌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영혼의 병을 치료 받아야 합니다.

어떤 병입니까? 본문 말씀대로 악독·케홀·외식·시기·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즉 욕심을 버

리라는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것을 깊이 회개하고 더 나아가 영적 허수아비를 만드는 병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돌이 되려면 먼저 회개부터 올바로 해야 됩니다.

둘째, 산돌이 되려면 깨끗한 마음으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젖을 먹고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듯 우리도 욕심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증거하고, 행실로 순종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단단한 차돌, 산돌이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자랍니다. 소망이 자랍니다. 사랑이 자랍니다. 봉사하는 생활이 자랍니다. 세상을 채우게 됩니다.

저도 요사이 내 욕심의 키는 더 클 수 없지만 지혜와 믿음은 더욱 더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비록 늙어 꼬부라져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산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돌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쓰지 못할 돌이라고 버림을 받았읍니다. 우리가 믿음·소망·사랑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악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산돌이 됩시다.

만명이 넘는 우리 천천교회 모든 성도가 모두 자라는 산돌이 되면 영혼 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자라 하나님께서 열개, 백개, 천개를 쌓아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당, 세계선교를 하는 교회, 천국 일꾼을 키우는 훈련소가 되고 마침내 복된 땅에까지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의 수많은 돌 중 성전 짓는데 쓰이는 돌이 복 있는 돌이고, 수많은 사람 중 하나님이 써주시는 인생이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의 재물·지식·기술·나아가 몸까지 전부 드려 하나님이 쓰시는 산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깨지고 공산당이 부서져야 되겠습니다. 너도 나도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신앙인격이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이 써주실 때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루는 산돌이 됩시다.

이처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산돌이 되면 한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 열릴 터이니 오고 오는 후세에 복을 물려주는 승리자·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임 승 원 목사

(현대교회 당회장)
(‘교사의 벗’ 주간)

오늘날 주교 교육의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다시 한번 주교 교육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며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는 오늘날 교회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로 발전하기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면서 교회 교육 전반에 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현재의 교회 교육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데서부터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학교 교과서, 매스컴을 통하여 계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과서에 각 단위마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는 반대되는 부분이 거의 전부이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것을 다 배운다.

예를 들면 충효사상을 말하면서 충효사상은 공자님 말씀에만 있고 기독교에는 없는 것 같이 학생들에게 유교적 사상을 자주 주입시킨다. 그러니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에는 충(忠)도 없고 효(孝)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지금은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교육에 무관심한 우리들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6일동안 사회 교육을 받고 주일 하루 잠시동안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은 비중을 보아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더더구나 도전하는 현실의 사회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한 교회 교육의 방침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일날 몇천명씩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이 학생들의 놀이터가, 장난감, 그림책이, 칼라TV가, 훌륭한 교재가, 훌륭한 시설이 있어서 나오는 줄 알면 큰 오산이다. 학생들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맛 볼수 없는 영적인

어떤 흥미의 요소가 있어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자에게 세상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들에게 감화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며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기독교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일반적인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기독교적인 풍조가 계속 침투해 들어오고 있으니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이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념을 모르고 교육해

둘째로 생각할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교육의 이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에는 교육의 이념·목적·사상이 바로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다른 이념이 무엇이나?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찬송가(새 358장) 가운데 장로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고 감리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다. 바로 이것이 다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눅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여 다 먹고 마지막에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내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되는구나 탄식한다. 그래서 일어나 품꾼의 하나로 대접을 받을찌라도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탕자가 갔다. 그런데 탕자가 완전히 갔느냐 가지 못했느냐에 차이가 있다. 장로교에서는 ‘아직 상거가 면데’란 성경말씀을 못 돌아 갔는데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맞추고 데리고 들어 갔다라고 하는데 감리교는 탕자



스스로 돌아 갔다고 한다.

탕자와 아버지와의 거리는 탕자가 좁힐 수 없는 거리이다. 제 힘으로는 가지 못한다. 무슨 채면에 무슨 힘으로 간단 말인가.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달려가서 데리고 온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간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념이다. 바로 이것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신앙이념의 차이점이다. 그러니 이념을 모르고 잘못 교육을 시키면 교육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것이다.

세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로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키워야 내 자식이야”란 말씀대로 내가 낳아도 남이 키우면 안된다. 한 교회에서 자라 그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가 되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이것이 참 교회이며 올바른 교육을 한 교회이다.

내가 키워야 내 자식이야

요즈음 교회에 교인은 많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인재를 상당히 모자란다. 바람직한 인재, 신학자, 교수, 목회자, 평신도가 많지 못하다. 이러한 교회의 인재 고갈이라는 문제해결은 교육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즉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있어야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의 말씀처럼 완성되는 길은 교육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자꾸 가르치고 연단 받고 시험 받고 교회 교육기관에 와서 공부하고 훈련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비정규적인 교육도 받아 우리 신앙생활하는 전 생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신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다. 이

러한 교육에 대한 이해를 일선의 교사뿐만 아니라 교회당국에서도 이해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가 키운 내 자식이 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도록 안목을 갖고 일해야 하며 일선의 교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생명을 키워야 한다.

사람이 자라서 스므살이 되면 부모가 너 주민등록증 있으니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 스므살이 되면 결혼 취직 집 사는 문제, 계속 해서 부모가 따라 다니면서 돌보아 준다. 바로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신비적 역사로 인한 교회의 불안정

또 교회교육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의 불안정 상태이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그 사회와 그 국가 내지는 세계의 정세가 계속적인 불안정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이천년 교회역사 가운데서 언제나 신앙의 불안정 상태와 함께 신비적인 역사가 강했다라고 하며 그진 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 신비적인 역사가 도를 넘어서 오늘날 교회의 가장 불안정 요소의 큰 몫을 차지해서 문제가 많다.

이러할 때일수록 가장 동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말씀 중심의 교육, 주경신학을 한 사람만이 신앙의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가르쳤느냐? 교육을 했느냐?에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는 것이다. 칼빈주의에 의한 개혁주의의 신앙은 바로 말씀의 절대적 권위 위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네째로 교육지도자에 관한 문제이다. 각부서를 맡은 담당교역자들의 자질 문제도 말할 수 있겠으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담당한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다.

한국의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난맥상은 신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하나의 실습과정으로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 통계를 보면 한

교육에는 혁명이 없다. 교육은 혁명이 아니다. 갑자기 뒤집어 엎어 놓으면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땅에 심은 나무에 한꺼번에 거름을 한 가마를 주면 하루 아침에 높이 올라 갈 것 같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 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과정이 다 된 다음에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중간에 이것을 이렇게 되었으니 바꿔야겠다는 식으로 바꾸다 보면 전체의 체계가 상실되는 것이다.

부서에 8개월 정도 있다가 탄대로 가 버린다는 통제가 있다. 8개월의 기간은 한 부서를 살살이 이해할 수 있는 기간도 안되는 것이다. 적어도 1년은 있어 봐야 현상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8개월밖에 안 된다니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안의 교육적인 모든 체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해서 그 지도자가 자주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큰 문제이다. 그러니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사명받은 대로 계속 그 길을 끌고 나가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 교사가 바뀌는 것도 교육에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교육의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도자와 교사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운데 하나이다.

다섯째는 교과과정대로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과과정대로 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되며 체계를 상실해 버린다.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공과도 바뀐다면 배운 것도 배우게 되는 중구난방이 된다. 교육은 어떤 사이클(cycle)이 있어 그 사이클이 한 사이클 돌아 간 다음에 전체적인 비판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교과과정 무시로 체계 상실

교육에는 혁명이 없다. 교육은 혁명이 아니다. 갑자기 뒤집어 엎어 놓으면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땅에 심은 나무에 한꺼번에 거름을 한 가마를 주면 하루 아침에 하늘 높이 올라 갈 것 같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썩어 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과정이 다 된 다음에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중간에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 바꿔야겠다는 식으로 바꾸다 보면 전체의 체계가 상실되는 것이다.

여섯째는 교회교육의 시설문제이다.

시설문제를 빨리 개선하여 한 클래스(class)에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씩 구분해서 거기에 교수가 따로 있고 조교도 한사람 따로 두어 아이들을

돌보게하고 충분한 교육자료를 가져다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설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정상적인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일곱째는 학생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학생들이 줄어 갈 것이다. 세계 추세가 점점 숫적으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이다.

한국의 주일학교만은 증가추세를 보이니 축복이다. 그러나 여기서 염려 해야 할 것은 이렇게 모여 오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갈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욕구불만이 생겨 도망 갈 것이라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거두지 못하면 그들이 홍수에 떠내려 갈 것이며 언젠가는 자가용을 타고서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집앞에 세워 놓고 아이들을 부를 때가 꼭 올 것이다.

몰려오는 학생의 영적 갈구 충족시켜야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요소를 감당하지 못하면 못 할수록 빨리 온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충실히 감당하게 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요소는 계속 된다고 본다. 이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다 더 알찬 내용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가 줄 것이 있어야 된다. 내게 없는 것 어떻게 남에게 주겠는가.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가 세상지식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이 보다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의 대비가 있어야 할 줄 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교육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사명은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것이다. 모두가 겸허하고 진실하게 이 귀하고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몇가지 생각해 보았다. 이외에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즉 영적인 면, 신령한 면등의 문제들이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가리라고 믿는다.

좌담회

주교 교육의 방향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새 학기를 맞으며 급변하는 사회교육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 교육의 응결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 볼 시간이 된 듯도 하다. 내일을 향해, 세계를 향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넣어 주고 올바른 키우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교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좌담회로 엮어 본다.

(편집자)...◇◇◇

일시 : 1979년 2월23일(금) 오후6~10시

장소 : 월간충현 편집실

사회 : 고제원집사(월간충현 간사)

참석자 :

김종석 장 로 <부장·중등부>

김경성 전도사 <부지도교역자·대학부>

정은표 집 사 <교육위원회위원>

유시주 어머니 <학부모·대학부>

김종주 집 사 <교사·고등부>

이형수 집 사 <월간충현 편집국장>

사회자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점은 늘 우리들의 주위를 공전하여 왔으나 급변하는 사회교육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이 서야 할 시간이 이미 지나간 듯합니다. 내일을 향해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을 불어 넣어 주는 시간이 아쉬운 때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제기가 이미 되었기에 해결책 및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오늘 좌담회를 갖는 의의라 생각이 됩니다.

주교 교육의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① 주교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② 지도자 및 교사의 빈번한 이동, ③ 교사의 자질 향상 및 훈련, ④ 교과과정의 적용과 교재선택, ⑤ 학생생활 지도 등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 하나 항목별로 토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주교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은표 주교 교육의 인식부족은 먼저 우리들 자신들이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중요성을 느끼는 만큼 만족된 행동이 따르지 못하며 주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막연한 상태에서 이해부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주교교육과 천국 일꾼 양성을 위해서는 주교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Master plan)이 필요하며 또 교육을 위한 많은 전담 교역자가 겸직하지 말고 꼭 상주하며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종석 저는 부장의 위치에서 학부형님들의 교회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학부형님들께 교회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끔 설교에서 강조가 되었으면 좋겠



<고제원집사>



〈유시주어머니〉

고 학부형님들의 관심 부족으로 교회 교육의 인식이 부족하므로 먼저 학부형님들의 교회교육의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학부형님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자녀들에게 교회 교육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있는 상태인듯 합니다.

학부모가 교육현장 참관케

그래서 학부형님들에게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인식시켜 드리는 방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가져 교육의 일부분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현장을 참관시키는 일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이 매우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학교 교육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으로 충분한 인격을 형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교육은 가정교육의 보조 교육밖에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인격형성의 토대는 바로 가정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이나 습관을 닮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부모님들의 역할로 가정에서 무언의 교수로 인격형성이 되는데 신앙생활도 역시 가정에 적응시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즉 무언의 생활교육이 중요하므로 주교 교육의 인식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교회교육에 대한 인식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부모님들에게 인식시켜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학부님들에게 인식시켜 드리는 방법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성 그 방법은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과 또한 방법은 심방목사님들께서 심방하시면서 특히 그 가정의 자녀(학생)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며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며 가정

옛날에는 동지의식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이부서에서 저부로 갔다하면 진급했느니 하는 진급의식에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원인은 적재적소에 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자기 재능에 맞게 사명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3~4 년동안 한 부서에 있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행정부문이나 교사의 질이나 지도자를 보필하는 부분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의 생명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하면 가정의 잘살고 못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가정이 되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인식시켜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설교·심방시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다뤄야

또한 가정에서의 신앙을 키워주는 것은 학교에 대한 대화만 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화 즉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예수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대화에서 부모님들이 작성해야 할 것을 작성도 하게 되고 자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알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신앙 문제들을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친구들을 찾아 가지 않고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교교육의 인식 부족은 결국 교역자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 전달의 결여라고 보며 또한 가정에서의 학부모님들은 가정의 중심은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신앙교육이 잘 되면 사회성까지도 기반이 서서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주 장로님과 전도사님 말씀에 전적공감을 갖고 말씀드리면 심방시의 심방 목사님께서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과 특히 가정 예배나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느냐와 자녀들의 신앙상태를 물어 보아 더 좋은 방법과 힘을 넣어 주기도 하며 때로는 권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자녀들의 신앙생활 중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강조 인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표 주교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주일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속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학생지도는 가정·학교에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고등부 이상의 교사는 전문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동, 말 한마디를 듣고문제를 느끼고 상담을 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어야 생활 지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장로〉

학교는 단계적인 여러 교육과정의 개체가 한가지 교육목표를 향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너무 개체별 주장이 지나쳐 전체의 중요성을 상실하여 협조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체가 아닌 전체에 대한 중요성을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개개의 자 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부 주일학교의 전체적인 교육 방향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교사들이 부서에 애착을 갖고 주장하면 좋으나 제가 요즘 생각해 보는 것은 신앙관의 잘못된 문제때문에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을 갖고 에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가 나타나지 않을텐데 '내가' 자꾸 나타나니 문제가 되어 지체의식이 결여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같이 주교교육의 인식부족이라는 것은 신앙관이 잘못 되었을때 봉사와 헌신보다는 내 명예와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인식부족은 근본적으로 신앙관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주교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에 대해서는 지도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지도자 및 교사의 빈번한 이동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교사 배치가 되어야

김종석 지도자 및 교사이동에 대해서 먼저 특히 지도자에 대한 인사 행정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여 배치해야 되건만 교역자이면 무조건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배치하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적성을 따라 안배해야 교육이 살아 날 수 있고 창의력이 살아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 문제가 되고 있음

니다. 지도자 인선에 문제가 있으니 이동이 빈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도자라도 재능에 따라 부서배치를 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이동 문제는 적시에 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시는 바로 실무진이 파악하여 실무진과 협의하여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교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교사의 기준을 사회 인격에 두고 있는데 대해 불만스러운데 제가 보전에는 근본적으로 중심의 신앙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에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인격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신앙 인격이 더욱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교사이동의 경우 빈번한 이동은 좋지 못하나 학생들을 위한 이동일 경우에는 매우 좋을 듯 싶고 특히 부별간에 상의하여 이동하고 실무진과 충분히 협의하여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정은표 저는 퇴임과 임명에 대한 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체로 이동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교교육은 연관성, 지속성,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동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이 크게 무시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교사의 이동의 문제는 교사의 수급

교회전체에서 교사발굴해야

문제로 귀착되는데 교사는 필요할때 선택하여 수급해야 할텐데 당장에 필요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사 수급을 위해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를 조사 발굴하여 더욱 훈련시켜 각 부서에 보내면 해결되리라 보며 또한 주교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고 먼저 교사로서의 사명의식이 강하고 최소한의 교사의 자질을 갖춘사람을 교사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여건과 거리가 멀어 당장 이런 이유로 교사의 이동문제를 억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주집사〉

김경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에 의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동지의식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이부에서 저부로 갔다하면 진급했느니 하는 진급의식속에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 원인은 적재적소에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이 자기 재능에 맞게 사명의식을 갖고 의욕적으로 3~4년동안 한 부서에 있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행정부서이나 교사의 질이나 지도자 보필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명감 없는 사람을 교사로 채용해서 빈번한 이동을 하게 한다면 오히려 인재를 파악하여 집중적인 훈련을 시켜 학생들을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의 질의 향상과 정예화가 좋을 듯 합니다.

유시주 교사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명의식이 투철해야 하며 소명감이 있는 사람만이 교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한 사람에게 10명 이상을 맡기면 곤란할 듯합니다. 소명감이 없는 교사일수록 빈번한 이동을 하는 것 같으니 책임의식을 느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교사로서의 본이 되는 연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교사 자질 및 훈련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교사의 이동의 문제와 겸하여 말씀해 주시되 좀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능사의 면허증이 아니다

정은표 교사의 신앙상태 파악이란 말은 교사의 자격이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의 기능사의 자격증처럼 한번 따놓으면 그만인 것처럼 자랄줄 모르고 안일한 신앙상태에 있지나 않는지 파악하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한교사의 신앙상태를 처음의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교사도 역시 학생과 똑같이 수시로 교사로서의 자성과 심적인 부흥과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의 상태를 다른 측면에서 항상 점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와 교사이동간의 협의 문제는 교육위원회에

교사의 신앙상태 파악이란 말은 교사의 자격이 신앙적인 면에서 사회의 기능사의 자격증처럼 한번 따 놓으면 그 기능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한 교사의 신앙상태를 처음의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서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이동여부를 파악한 다음 한 부서에서 3년이상 된자를 이동대상으로 올려 놓고 그 다음에는 각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부장및 지도교역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교사의 소양, 특기, 특별한 탈란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동을 시키기는 시켜야 할텐데 그렇지 못해 불완전하게 방법을 강구한 것이 현재 교사의 이동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동후 다시 이동이 뒤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시주 주교 교사는 생명을 맡은 자이기에 학교 선생님보다 더 중하며 그렇기 때문에 맡겨 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진로 방향까지 제시해 주어야 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때는 천자식처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맡겨 준 생명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천하에 못 쓸 사람을 끈달아 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을 본받아 못 쓸 사람을 새사람 만들기 위해 헌신 봉사 양육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김종석 교육위원회에서 연말 교사 이동을 결정한 다음 발표하기 전에 각부 부장에게 보여 줘 이리 이리 하기 때문에 이동되어야 한다고 사전이해를 구하면 이동도 빈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진의 인식은 앙케이트나 소견서를 물어 450여명의 교사에게 다 내어 이동의 조건이 이리 이리 하다고 정확하게 이해시켜 이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면 승진의 인식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동요강에 대해 제시해 준다면 교사들도 올바르게 이해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지도자가 교사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교사의 신앙절도는 누구도 모르나 대충 지도자나 부장은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사의 신앙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에 있어서 지도자나 부장이 어느 정도 개입하여 각기 부서에 적절한 교사를 이

각부 지도 교역자를 전문화 시켜 다른 일을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맡은 부서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을 사랑으로 포용하여 한 학생에게 한 교사가 책임지고 계속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앙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처해진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으로 포용을 해야 합니다.



〈김경성전도사〉

동시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사기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계신 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이겼으나 새로 오시는 교사님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새로 오시는 교사에게 면담을 청해 왜 교사를 하시려 하십니까? 를 물어 봅니다. 교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학생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려면 맡겨 준 생명들을 위해 하루에 한번씩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공과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양심으로 반에 들어가 출석만 부르고 공부는 시키지 말고 이웃반에 합반시키고 동반생이 있으면 당일 심방을 반드시 하라고 부탁드립니다. 결석심방, 신입생 심방은 교사회의를 못 하더라도 당일 필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집회는 시간엄수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자신이 있으시면 다음 주일에 교사 기록부를 써 오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면담한 사람중에 반은 교사 기록부를 써 오지 않았으나 써 오신 분들은 그 후 기성의 교사 이상으로 헌신, 봉사하시며 바로 이것이 주교 교사이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어 열심이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배 교사의 처음 기용할 때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개 각부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신중히 기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의훈련의 문제에서는 우리 교회의 교사들이 연합회 교육에 전혀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훈련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교사들은 훈련과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것이며 교사중심의 심령부흥회를 가져 소명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기록부에 훈련사항을 다 기록하여 기록으로 남게 하여 누가 보아도 어느 정도의 신앙상태인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성전으로 갈 것을 대비하여 공부방법도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새성전에서는 한방에 한 반씩 들어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 가기 전에 훈련기간으로 삼아 그러한 환경에서도 자신있게 설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알아 생명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새성전을 위한 연구수업등이 새성전에 들어 가기전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사훈련 참여를 기록에 남기도록

김종주 교사의 자질향상 및 훈련의 면에서 저는 두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사는 항상 도전을 받아야 한다. 바로 성령 충만한 교사에게 도전받을 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 교사에게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교사는 계속 연구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는 가운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충분히 이해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별 특성을 살린 훈련이 필요

특히 초신자 훈련방법은 구원 상담에 대한 구절을 암기하여 족석에서 인도해 주고 계속 육성시킬 수 있는 훈련을 교사들에게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은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사훈련상태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훑어 본다면 좀더 실질적인 훈련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집단적인 교사훈련보다는 부별 특성을 살려 부별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한 것은 각 부별로 교사 자질향상과 훈련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 있는 문제는 누가 무엇을 교사에게 가르치겠는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사를 목표로 그리고 각부의 훈련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적임자인가를 파악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교육위원회에



〈정은표집사〉

서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현재의 목표는 새성전으로 옮겼을 때의 상황을 예측하여 훈련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국내만을 국한시켜 일을 하려면 구태여 새성전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새성전을 짓는 것은 국내가 아닌 세계를 향한 사명을 감당키 위해 짓는 만큼 저기에 맞게끔 교육의 목표와 훈련계획이 구체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김경성 교사훈련도 좀더 I부, II부로 나누어 구별하여 훈련을 시켰으면 하고 그 훈련기간도 대폭 늘렸으면 좋겠고 그 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동안 교사들은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훈련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자기의 신앙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무언의 교육이며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목별로 강의위주로 해야

그리고 훈련을 과목별로 강의 위주의 교육을 한다면 관심있게 들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교회사이면 교회사 전반을 한번의 훈련기간동안 한번 강의하는 방법의 훈련이 된다면 많은 교사들이 참석을 할 것이며 이것이 교사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면 전체 교사의 교육상황과 신앙상태도 파악되리라고 봅니다.

이행수 교사훈련을 I부, II부 구별하여 시키는 것도 좋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세분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각 부서의 특성을 살려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사훈련을 할 때는 교육위원회에서나 각 부서에서는 세가지 측면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신앙적인 면을 위한 부흥회인데 이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이지요. 주교 교육 26년동안 아직도 이 문제를 위해 소명감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둘째는 교사전체의 교양과 지식을 위한 조직 신학, 교회사, 교리등의 강의와 세례는 각 부서의 특색을 살리는 것 중·고등부의 경우 학생심리, 대학부의 경우 육성책 등 각 부서의 특성에 따른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가지 교회와 교육위원회에 부탁하고

학부형님들에게 자녀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인식시켜 드리는 방법이 필요할 듯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부모 초청 좌담회를 가져 교육의 한부분에 참여하시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현장을 참관 시키는 일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싶은 것은 연초의 단기수련회에 좀더 강화훈련을 시켜 그 훈련이 무엇인가 한 곳으로 몰아 가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지 연중행사로 그친다면 별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교사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

김경성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전체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훈련을 위해 신학교 과정의 교과와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그때 그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사회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사자질 향상 및 훈련에 대한 문제의 해결방안이 매우 폭 넓게 의논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부별 특성훈련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강좌 및 부흥회 등 전체 교사를 위한 자질향상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들이 지배적인 듯합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점차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리라 믿으며 마지막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중주 입시지도에 대해서도 고등부에서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생활지도면에서 먼저 신앙의 안정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고등부에서 성가대원들에게 경건의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여 통성기도 하면서 결심들을 하였지만 그 다음 주일에 점검을 해보았더니 한명만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추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요성은 알지만 의지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교 교사들이 일일이 점검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도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유시주 저도 학생들에게 지도할때도 학생들에게 성수주일 하라고 강조하면서 시험에 떨어지면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말을 하고 매주일 점검을 하면서 1년 지난후 결과를 보았더니 좋은 결과를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새성전으로 갈 것을 대비하여 공부방법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새성전에서는 한방에 한 학급씩 들어 갈텐데 그와같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성전을 위한 연구 수업 등이 새성전에 들어 가기 전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형수집사〉

이형수 학생생활지도는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학생생활지도를 주교 교사가 못하면 가정에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너무나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교사님들이 주일에 오셔서 준비해 오신 공과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기뻐하면 심방정도 다녀 오셔서 그것을 기록으로도 남겨 두지 않는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끊임없는 생활점검이 있어야

학생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나 교사들은 많은 경우에 학생들에게 속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학생 생활지도는 가정,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교회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면 최소한 중·고등부 이상의 교사가 전문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의 말 한마디나 행동을 보고서라도 금방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눈치 채고 상담을 하기 위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알고 있을때만 학생생활 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주의를 집중 시키지 않으면 생활지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그만두면 1주일도 못 가서 또 변합니다.

김경성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고 원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숫적인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지도교역자에게 전권을 주어 지도케 한다면 당장에는 수가 줄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은 지도자가 학생들을 위해 출혈을 각오하고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세워 실시해 가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특히 각부 지도교역자들을 전문화시켜 다른 일을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맡은 부서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은표 학생생활 지도면에서 제가 지적해 보고자하는 것은 저회들이 상담을 하고 지도하는 것이 사후지도나 아니면 예방지도나 하는 것입니다. 여태껏의 상담들이 대개 사후지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방지도를 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

김경성 예방지도는 말씀을 통하여 지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학생들은 갖고 있는 신앙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은표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지구력 인내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므로 특히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추적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저의 생각으로 학생 생활 지도면에서 한가결여된 상태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 주는 방향제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무엇인가 피어 나고자 할때 아름다운 한송이가 되도록 이끌어 주며 꿈을 심어 준다면,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시켜 씨대를 세워 준다면 지엽적인 문제에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 뚜렷한 목적의식을 불어 넣어 주면 이차적인 문제는 해결되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저회들이 자라나는 생명들을 위해 당연한 주교 교육의 문제 특히 주교 교육의 인식부족, 지도자 및 교사의 빈번한 이동, 교사 자질향상 및 훈련, 학생생활지도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좋으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쉽게는 시간관계상 교과과정의 적용 및 교재선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루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나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신 말씀들이 진정 충현교회의 주일 학교 교육에 적용되어 세계를 향한 주교 교육을 위한 종합기본 계획에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더욱 주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의 1979년도

충현 주일학교 운영계획

◇◇…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개교한 것이…◇◇
 ◇◇…1953년, 교회가 설립되면서 부터였다. …◇◇
 ◇◇…그동안의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질과 양…◇◇
 ◇◇…으로 크게 발전해 온것은 자타가 다 아…◇◇
 ◇◇…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부흥·발전…◇◇
 ◇◇…해온 주일학교는 그대로의 큰 문제점과…◇◇
 ◇◇…애로를 가지고 내적인 고민을 해 온 것…◇◇
 ◇◇…도 사실이다. 월간충현에서는 계속 주…◇◇
 ◇◇…일학교 교육문제를 다루며 음으로 양…◇◇
 ◇◇…으로 교육정책에 참여해 왔다. 금년도…◇◇
 ◇◇…에도 우리의 이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
 ◇◇…다. 모두가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문제…◇◇
 ◇◇…를 문제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
 ◇◇…해결을 위해 서로가 성실하게 노력해…◇◇
 ◇◇…나갈 때 우리 교회의 주교 교육은 보다…◇◇
 ◇◇…차원 높게 발전할 것이다. …◇◇
 ◇◇… 각급 학교의 신학기를 맞으며 3월호…◇◇
 ◇◇…의 특징으로 주교 교육문제를 다룬다. …◇◇
 ◇◇…연초 교사수련회시 임승원목사의 「주교…◇◇
 ◇◇…교육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이란 강…◇◇
 ◇◇…의의 내용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다시 확…◇◇
 ◇◇…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의 주…◇◇
 ◇◇…일학교 교육은 우리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색이 있어서 주교 교육관계의 여…◇◇
 ◇◇…러분을 모시고 이미 여러번 제시되었던…◇◇
 ◇◇…충현 주교의 문제점을 놓고 그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한 1979년…◇◇
 ◇◇…도의 우리교회 15부 주일학교의 운영계…◇◇
 ◇◇…획을 교육위원장을 통해 알아본다. …◇◇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일련의 주교…◇◇
 ◇◇…교육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한데 모아…◇◇
 ◇◇…이져 보다 나은 충현 주교 교육에 한발…◇◇
 ◇◇…씩 다가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
 ◇◇…
 ◇◇…〈편집자〉 …◇◇



〈교육위원장 / 정상우목사〉

1. 충현 주교의 교육방향

충현 주일학교는 첫째 충현교회를 향한 세계의 선교 요청에 응하며 급변하는 세대에 복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둘째는 교회의 당면과제인 성전건축과 해외복음 선교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방향을 정한다.

2. 교육위원회 목표

우리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국일꾼을 키우자」라는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며 금년도의 교육위원회의 목표를 다음의 세가지로 정한다.

가. 영력(靈力) 있는 교사, 실력있는 교사가 되게 한다.

나. 주일학교 교과서의 체계를 확립하며 모든 행사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3. 실행계획

이를 위해 교과·교사·학생·장소·행정·재정의 분야에서 보다 발전적이고 교육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가. 교과과정

(1) 이미 마련된 교과개정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며 적절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지 않은 임의적인 교과내용의 수정을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2) 이미 마련된 교과과정 내용의 적절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강구한다.

(3) 장년부·노년부·산업전도교육부의 교과과정을 제정한다.

(4) 주일학교 제반 행사를 계획·실시함에 있어서 교과내용이 보다 더 충실하게 실현되도록 한다.

*실시방안

① 각부 교사로 하여금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② 각부별로 매학기보다 자체 교육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③ 교육위원회가 연말에 주교 전체교육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주교 교육의 전문적인 지도교수를 통해 종합평가보고서를 감수받고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⑤ 이같은 종합평가를 매 해마다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교과과정을 보완·정착시켜 나간다.

⑥ 3년 이내에는 가급적 각 부의 지도교역자 이동을 지양한다.

⑦ 학생특강·학생특별 행사를 통해 교과과정을 적극 반영토록 한다.

나. 교 사

(1) 교사의 시야를 넓혀 범 세계적인 천국일꾼을 키우겠다는 긍지와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2)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사훈련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3)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각부 자체교사훈련을 체계화하여 일차적으로 교사 자신과 자체 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4) 교사의 환경여건과 개성 및 신상에 관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교사훈련 계획에 참고토록 한다.

(5) 장기적인 교사 수급 방안을 강구하며 교사 사임을 원인으로 규명하여 교사 사임율을 낮춘다.

*실시방안

① 1978년에 이어 올해에도 성경학원·지도자양성부를 적극 권장하여 임시교사를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②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자체 교사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 교사단기수련회: 성경학원 1회, 교육위원회 2회
- 교사특강: 교육위원회 4회, 각부 1회 이상
- 교사기초회: 각부 2회 이상

• 실무자교육: 교육위원회 4회

• 학무지도: 교육위원회 4회

• 각부 자체 수련회

③ 교사의 필독 도서를 계속 권장하여 교사의 교양과 자질을 높인다.

• 필독도서: 교회의 교육적 사명·교사와 학생·능력있는 기도

④ 교사 봉사 기록카드를 작성 운영하여 제직 임명등 교회의 각종 인사 조치에 자료가 되게 되게 한다.

다. 학 생

먼저 학생 개인의 신앙생활 환경과 개성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충현주교 전체 학생에 대한 성향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와 교육방법의 개선 참고 자료로 삼는다.

학생문제와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 학생출석 동향조사

(2) 학생 개인환경 여건조사

(3) 학생 신앙성장도 측정

라. 교육장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장소문제로 우리의 현실을 받아 들이며

(1) 현재 사용중인 장소 현황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 해 본다.

(2)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과가 큰 교육방법이 없는 지 조사하여 본다.

마. 주교행정

효율적인 주교 교육을 위한 지원으로 행정면은 중요하다. 보다 통일화되고 체계있는 주교 행정 확립을 위해

(1) 주교 행정 업무내용을 단일화 시킨다.

(2) 주교 행정 업무를 체계화시키며 가급적 일원화 시킨다.

(3) 주교 행정 업무를 표준화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을 강구한다.

(4) 주교 행정 업무 실무자의 빈번한 이동을 억제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화시킨다.

(5) 사무 기기등의 개선과 주교행정업무 유통경로를 개선하여 능률화 시킨다.

바. 주교재정

현재 몇개 부가 교회의 보조 받아 움직이는 것을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초 승인된 예산 이상의 초과 지출을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후년으로 나누어 예산계획하에 시행토록 한다. 또한 주교 재정업무 실무자의 빈번한 이동을 억제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해 전문화 시킨다.

3.1운동의 현대적 재조명

김 차 생 장로

(당회원·성경학원원장)



한국교회사를 더듬어보면 “수난과 부흥”이라는 과정으로 집약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였고, 민중의 가슴속에 소망과 가능성을 안겨 주는 사명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왔다. 당시 한국교회는 수난과 부흥의 과정속에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하였다.

1 백년 미만의 한국교회사를 살펴 볼 때 교회가 민중속에서 호흡하고 그들을 주도하여 하나의 집약점을 제시한 것은 3.1운동이라 하겠다.

1979년 3.1운동 60주년을 맞은 시기로서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의 정신을 재규명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하여 재평가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역사란 앞날을 비추는 거울이다. 3.1운동은 한국 현대사의 지킴이며 민족의 앞날을 비추는 거울이기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빛 아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하여야 할일을 바로 진단해야 할 것이다.

1. 민족의 심장이었던 교회

1885년 선교사들의 정식 입국 이후 우리 교회는 민족의 심장이었다. 교회가 살아 있으므로 인해 민족이 사는 역사의 변증법을 눈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이를 통해 민족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자세를 굳건히 하였다.

당시 국내의 여건은 대한제국을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각축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한반도는 일본의 압제속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민중의 심정을 대표한 조직적인 기관으로써의 우리 교회는 피를 희개하고 새로운 불길이 일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1907년의 대부흥 운동이었다. 한국의 오순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대부흥 운동은 비참한 정치 여건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민중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안겨 주게 되었다.

교회는 민족의 심장으로써 길 잃은 민중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수난의 과정을 거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민족에게 참다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2. 민족의 중심이었던 교회

우리교회가 민족의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이를 구체화시키며, 민족의 수난에 동참하게 된 획기적 계기는 1919년의 3.1운동이다. 3.1운동이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에만 의하여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역사의 흐름과 당시 국제정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3.1운동의 전개와 그 정신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우리 교회가 민족의 수난에 동참하여 민족의 주도적 기구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된 사실을 고찰하려한다.

교회가 민족의 역사에 동참하여 3.1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것은 교회의 어떤 공식적 결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써 자기 사명을 다하려는 역사 의식에 발로라 하겠다.

3.1운동에서 교회가 맡은일은 막중하였다. 민족대표 33 인중 기독교 대표가 16인이며,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한 분이 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기독교 지도자들로 조직된 〈애국부인회〉는 3.1운동에 큰 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상에 나타나고 있다. 하여간 3.1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6개월이상 계속되었고 참가자가 1백 36만여명에 달하였으며, 피해상황은 격심했다.

박은식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에 의하면 사망 7,509명, 부상자 15,850명, 투옥 46,306명이라는 민족 최대의 수난을 겪었다. 또한 동아일보사가 발간한 〈3.1운동 50주년紀念論文集〉에 의하면 1919년 6월30일까지 참가자의 일심판결 내용을 보면 유죄 징역 22,275명, 집행유예 637명, 벌금 81명, 구류 18명, 과료 3명, 태형 4,490명, 계 2,865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와같은 민족의 수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당한 고통도 매우 컸다. 1919년 10월 4일 평양신학교에서 회집되었던 〈장로만교의〉에서 살해 39명, 목사 4명, 상해 18명, 약형 142명, 태형 495명, 복역 719명, 미결 44명, 구류 20명, 보석 2명, 예심 3명, 상고 20명, 공소무죄 10명, 집행유예 30명, 예배당 손실 8개처, 예배당 파괴 4개처, 피해액 4만여원 등으로 집계 되었다.

이와같은 기록들이 증거하는 것은 당시 교회로 사회에서 격리된 집단이 아니라 민족 속에 들어가서 참 소망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교회는 민족의 중심 센터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다운 소망을 제시하였고, 민족의 수난에 함께 동참하는 민족교회로서의 참 모습을 보여주었다.

3. 민족의 소망이었던 교회

3.1운동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민족의 동질성(同質性)을 확인시킨 사실이다. 여기에는 어떤 신분의 차이나 남녀의 구별이 배제되었다. 오직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으로 말미암아 3.1운동이 극대화되고 저변 확대가 가능케 되었다.

물론 33인 중에 기독교인 16명이 기독교 원리에서 떠난 행동은 하지 않았음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33인 중에 신석구 목사는 검찰 심문에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불의불신한 일본사람에게 우리 민족을 영원히 맡기지 아니할 것을 굳게 믿고, 이를 사려물고 지금까지 참아왔다.” 라고 증언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3.1운동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일본 총독부의 소위 문화정치라는 외면적 통치방법의 변화 외에도 민족의 자기 발견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국내에서의 자각운동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한 민족계몽운동, 물산장려운동, 청년운동, 문화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920년에 장로교에서 〈진흥운동〉, 감리교에서 〈백년전진운동〉이 일어났고, 장로교의 청년면려운동(C. E.)와 감리교의 엠넷운동등을 통하여 새로운 활기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여주고 있다. 교회는 민족의 친구로써 참 소망의 제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다.

이제 60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 와서 우리 교회는 이 민족과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가? 3.1운동 그 날의 지도력을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60년전의 3.1운동을 교회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회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금 되돌아 보는 지혜의 눈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하여 참다운 영적 소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신적 허무의식이 패배한 이 시대에 참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고도로 퇴폐화된 물질 속에서 교회는 우주의 주장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 야욕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이 굳게 뭉쳐야 한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평생의 감동

기 미 년

고 제 원

기미년 3월 1일 정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기미년 3월 1일은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의 잊을 수 없는 날이기에 기미
년이라고만 해도 그때의 만세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 '대한독립 만세!'라는 소리는 지
금의 젊은이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소리일
른지도 모른다. 한 때에 있었던 민족운동이었다
고 생각하고 넘기려는 크리스찬도 많다는 이야
기다.

당시의 류관순 여사를 생각해 한다. 만세운동
의 주동자. 비록 여자였으나 남자도 하기 어려
운 일을 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와 민족
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노라는 단호한 결심과
목표가 서 있었기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고
그 피흘림이 있었기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오
늘과 같은 현실이어나마 주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한 사람의 부르짖음과 피흘림! 희생할 수 없
는 상황과 처지에서 희생을 하였기에 결과는 만
세였다.

민족운동의 내면에 배놓을 수 없으리만치 도
사리고 있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었다. 하나님의
생명체들만이 할 수 있고 실제로 한 산 증거들이
아니겠는가?

환갑을 맞는 3·1절을 음미하면서 감사할 일
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
는 시간을 갖고 싶다. 류관순 여사 한 분의 부
르짖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독립 시켰듯이 예수
님 한 분의 피의 값이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한
인간의 희생이 한 나라를 구했듯이 하나님의 아
들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온 세계를 구원하고
도 남음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맹점이 뚜렷한 목적의식의 결여라
면 60주년을 맞는 3·1절이 주는 의미를 감사
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하여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전 세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 감사할 수 있
게 되는 금년이 되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찬송가 감상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 (새 469 합 448)

김 중 석강도사

(성가부 지도)

구주와 함께 못박혔으니
구주와 함께 또 영생연배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시시 때때로 주만 뵈나.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는데는 두가지 양상이 있다
고 봅니다. 하나는 열정적으로 힘껏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조용히 맘속으로 음미해 가며
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조용히 불러야 할 경우에 속합니다. 곡
조도 물 흐르는 듯 하다가는 멈칫하곤 하여 (심표를
사용하여) 가슴에 젖어드는 호소력을 더해 주고 있
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용한 찬송에서 더 큰 감동
을 받곤합니다. 특히 가정예배나 구역예배같이 조촐
한 집회에서 이 찬송을 많이 불렀으면 합니다. 부를
때에는 약간 빠른 속도로 부르다가 전반부 끝부분과
후반부 끝부분에서만 약간 늦춰주면 좋을 것입니다.

시시 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시 때때로 새 생명주네

이 찬송시는 미국사람 윌틀(D. W. Whittle 1840
~1901년)대령이 썼고 그의 딸 메이(May Whittle)양
이 작곡했습니다. 이 딸은 후에 무디선생의 며느리
가 되었지요. 윌틀은 무디선생을 도와 많은 찬송을
작사했는데 전도사 한 분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음성 외에는)이란 찬송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나
는 시간마다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음성
외에는 이라는 찬송이 원작에는 주님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음)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거든요"라고 하자
이 곡 "시시 때때로"(Moment by moment 순간마다)
를 짓게 되었다 합니다. 곡풍은 낭만적이면서도 단정한
복음성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심정은 항상 활기에 차 있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
을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저녁 조용한 시간 피
로를 풀면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조용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는 듯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순간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새 생명
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
게 됩니다.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 2 월 중 구입한 도서 -

I. 신학도서

1. 조직신학

- 1) 소요리문답강해 : G. I. 윌리엄슨 저
최덕성역 한국개혁주의 신학회 397 p 1978
- 2) 바른신앙 : <신앙고백서 해설> · 장경두 저. 성
도출판사 1978. 176 p <장경두목사 기증>
- 3) 성령의 나타남 / 고린도전서 70 강 · 이인한 저
은혜출판사, 1978. 336 p

2. 기독교윤리

- 1) 죽은 후의 사건들 : 데이비드 윈더저 유평자역.
생명의 말씀사, 1978. 113 p
- 2) 자기 개선을 위한 7 단계 : 제임스 앨러리 저
유평자역. 생명의 말씀사, 1978. 157 p

3. 이단종교

- 1) UFO'S 비행접시의 정체 : 존 웰든, 폴라 레
바트 공저. 권명달역 보이사사, 1977. 210 p

4. 설교집

- 1) 권능을 받고 / 사도행전 129 장 : 이인한저. 은
혜출판사, 1975. 418 p
- 2) 성경의 여성 80인 : A. 카이퍼저, 이인한, 이
선옥공역. 은혜출판사, 1978.
- 3) 오늘과 미래를 위한 메아리 : 양계성저. 한국
기독교 교육연구원, 1978.
- 4) 목자의 시 : 프제드립 마이어저. 배 상호역.
생명의 말씀사, 1978. 119 p
- 5)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 최자실저. 영산
출판사, 1978. 532 p <조성행 집사 기증>

5. 기독교 교육

- 1) 희망 찬 십대의 세계 : 위렌 스위비저, 유양숙
역. 생명의 말씀사, 1977. 147 p
- 2)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는길 : 테드 W. 엥스트
저. 권명달역, 보이사사, 1978. 395 p
- 3) 성경을 상고하자 : 윌퀴만 니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1976. 176 p

* 책소개 *

오늘도 신앙을 지키
기 위해 부모나 사회
로 부터 환란과 압박
을 당하는 형제들이 피
난처를 찾아서 급한을
본다.

여기서 환란 당한자
가 피난처 되시는 여
호와께 자신을 맡겨서
평안을 누릴수 있는
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코리텐 봄의 "피
난처"가 있다.

야곱의 말년에서 성화된 신앙을 보았듯이 코
리가족의 성화된 신앙 인격에서 참 신앙이란 어
떤 것인가를 본다.

꽃과 향기가 있는 꽃에 벌 나비가 찾아 들듯
이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랑의 음율이 울려 퍼지
는 코리의 가정에 버려진 자들, 독일의 침략자
에게 학대받는 유대인들이 피난처로 모여든다.

사회에서 망각된 노인들과 창백한 여인들을
위해 스프를 갖다 먹이며 가난한 이웃에게 모자
와 아기옷을 만들어 주고 그러지 못할 때는 한
렘시의 빈민에게 위안의 편지를 쓰는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에서 사랑의 실천을 배운다.

죽음을 3 주 앞둔 안스 이모의 "빈손이야, 빈
손이라구.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가지요?"하
는 절규 앞에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될 자
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게 된다.

결혼을 꿈꾸며 사랑하던 카렐이 다른 여인과
결혼 했을때 고통스런 마음을 주님께 바치며 그
들을 축복하는 코리의 기도는 진정한 그리스도
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주님의
뜻만을 높이는 것임을 깨닫는다.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허락하
시는 거야"하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신앙에
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의 위력을 보게
된다.

퍼붓는 적기의 포화 속에서 자기를 향해 쏟아
대는 독일 조정사를 위해 기도하며, 휘두르는 채
찍에 맞아 등줄기에 피를 쏟으면서도 그 간수들
을 위해 기도하는 베치의 사랑의 극치에서 예수님
의 모습을 본다. 환란 당한 그곳에서 주님께 감사
하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화함을 분명히 본다.

이 책을 읽는 분마다 피난처를 찾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그들 자신이 또한 환란 당
한 모든 자의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읽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책
을 권해본다. 김연이 전도사 <청년부부지도>

코리텐 봄 지음
김 의 자 옮김



442면 · 값 1500원
발행처 / 보이사사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구약시대에 있어서 종교적 도덕적 생활의 이상과 규범뿐 아니라 사회적인 형성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에 따라 규정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또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모든 법전들, 즉 언약법전 (Covenant Code 출 20:23-23:33) 이라든가 신명기 법전 (Deuteronomy Code) 그리고 성결법전 (레 17: ~26:) 등 다분히 예언적이며, (prophecy) 의식적 (Ceremonial Code) 내용에서 인도적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출 19:4-6 참조)

그러면 구약의 윤리를 3시대로 구분하여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모세시대

이 시대는 율법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생활의 방편을 통해 살펴 본다면 -

1) 민중생활 (civil life)에 관계된 율법

그 당시 율법 가운데 많은 부분이 백성들의 생활에 관계된 것이었는데, 특히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규정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노예에 대한 배려라든가 폭행과 도적 행위에 대한 형벌, 재산을 손상시켰을 때의 보상문제, 가정관계, 외국인 기우자 (寄寓者)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조, 종들과 가축들 까지도 쉬게 하라는 안식일 준수등의 율법(출 20장 이하)등이다.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놀라운 정의감을 표시한 것이며, 아울러 도덕적인 책임과 피압박자에 대한 인도적 관심을 표시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한가지 특이한 것은 이 민중법규의 주요 원리가 복수(復讐)이었다는 것이다. 즉 이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 21:23-25)는 사상이다. (레 24:17-21, 신 19:21 참조)

2) 의식 생활에 관계된 율법

이것은 예배 형식과 희생의 제도 등에 관계된 율법이다. 이 법규의 원리는 한마디로 거룩함과 순결이다. 여기서는 예배에 항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제단과 제물을 위한 준비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에 대한 확인으로 계속되어 있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를 의식적 제을 엄수를 통하여 나타내야 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의 특색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순결하여 부정한 것에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3) 도덕 생활에 관계된 율법

이것은 도덕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한 뜻으로 십계명에서 찾아본다. 이 십계명은 비록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졌을지라도 그 의의와 관계는 선민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우리는 십계명에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거, 탐욕등을 금지하고 있음을 본다. (출 20장) 이렇게 율법은 엄격한 도덕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 연재순서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3. 신약의 그리스도 윤리관
4. 윤리적 주관자 인간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6. 윤리의 척도인 양심
7. 크리스찬의 윤리적 이상
 - 1) 사랑의 실천
 - 2) 하나님 나라 형성
8. 생활속의 윤리
 - 1) 결혼과 가정, 이혼문제
 - 2) 경제와 윤리
9. 사회속의 윤리
 - 1) 기독교와 인종문제
 - 2) 국제질서·전쟁·평화
 - 3) 기독교 윤리와 문화

구약의 모든 윤리의 이상은 구약의 도덕적 이상의 가정이라 할 수 있는 여호와 언약 및 율법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을 떠나서는 올바른 도덕 생활관을 확립할 수가 없다.

2. 선지자 시대

이 당시는 율법을 더 깊고 신령하게 해석한 시대이다. 특히 백성들이 어떤 의식적 행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 할 때 선지자들은 이것을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켜 그 내적인 면을 대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특히 왕국 시대에 더욱 심했는데, 그들은 의식을 지키는 데는 별로 흥미 없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때에 나단 선지는 범죄한 다윗 왕에게 “당신이 곧 그 사람이라” (삼하 12:7)고 책망하였고,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왕을 공박하였다. (왕상 21장) 이것은 다만 그 당시 살인이나 강도가 국법에서 금지되었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높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도에 위반한 행위라는 데서 그들은 임금들에게 까지 강력하게 책망을 가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외친 것이다. 그가 본 언약의 진정한 중심은 제전이나, 장엄한 집회나, 번제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도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선택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아모스가 선포한 예언의 태세는 사회 정의와, 주님의 날을 맞이 하기에 합당한 회개의 요청이었고 이 요청이 응해지지 않을 경우에 임할 징벌과 멸망의 예언이었다.

이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라는 동일한 메시지는 그 후에도 계속 되었다. (사 1:10~17, 암 5:21~24, 16:6~8, 욥 2:13) 그들은 온갖 이방 종교를 박멸하고 (신 12:1~3), 모든 우상 숭배자를 극형에 처하며 (신 13장) 모든 예배에 충성하고 순종할 것을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율법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한 일은 없고, 오히려 율법의 깊고 신령한 의미로 해석하여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중심으로 지켜야 할 것을 고조하였다. 입과 혀의 순종이 아니라 중심의 순종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 제사 행위에만 분망한 것을 안타까워 하였다. 즉 깨닫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진심을 바치지 않음을 교훈하였다. (렘 4:3~4, 14: , 7:21~23, 31:33) 종교 행위란 어떤 회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전하였다.

3. 포로 후 시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 온 당시부터 두 조류가 유대 사상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두 조류는 예수님 당시에도 유형이 되었으며 그 유형이 기독교에도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직접 간섭에 의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종말론적 기대 (apocalyptic expectancy) 이고, 다른 하나는 잠정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어떤 정치적 조직 아래 살고 있는 남은 백성들이 언약의 율법을 지킬 필연성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치하신다는 공통된 신앙의 즐거이에서 싹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크게 일으키시리라는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공통된 소망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이 이 시대의 특색은 율법을 꼭해 함에 있었다.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그들은 율법을 높이는 정신을 배웠다. 그들은 율법을 읽음으로 포로가 된 것이라 생각하여 이것을 열심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율법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는 특히 이 정신의 지도자인 전형적인 인물이다. (스7:10~11) 회당은 율법 연구의 중심이 되었고 교법사들은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심지어는 여호와 보다는 그의 뜻의 표현인 율법을 더욱 숭배하였다. 교법사들은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고 오직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능사를 삼았다.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었으나 오래지 않아 백성들이 극단의 율법주의 (legalism)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율법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심지어는 여호와 보다는 그의 뜻의 표현인 율법을 더욱 숭배하였다. 교법사들은 율법의 수호자가 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고 오직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능사를 삼았다. 이로 인하여 도덕윤리의 이상과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국 사람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통일성 있게 표현한 율법이 서로 연락이 없는 다수의 율법과 규칙과 교훈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율법의 근본 정신에서 멀리 떠난 것이 바로 아포크리파 즉 구약 가경과 탈무드 (Talmud)의 특색을 이루었고 이것이 또한 현재까지 유대교 윤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속화된 사두개인들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편협된 형식주의, 독선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신 것이다.

시편에서 주는 주간의 만나

시 57:1~3

피난처는 하나님 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근거하여 부탁하는 다윗의 시로 내 영혼이 피할 곳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은혜의 날개, 사랑의 날개 밑 밖에 없으며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숨겨 주기를 바랬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편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므로 회개하는 의인을 용서하시고 약자를 돌아보아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서서 세상을 다 살피사 악한 자의 계획과 악한 자의 억울함을 보시고, 죄인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공시키시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 백성을 보호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삼키려는 악마의 종에게 제멋대로 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천사를 보내어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지켜 주십니다.

위험한 일에 처할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원수 손 못대는 하나님 품에 깊이 깊이 들어가는 생활이 됩시다.

시 57:4~6

원수가 받는 심판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까닭없이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는 용맹스럽고 잔인한 사자와 같은 무리들이며, 불을 놓아 속이 타게 해주는 무리들이며, 저희 이는 번쩍번쩍 하는 창이며 뜻하지 않은데서 급소를 맞히는 화살이니 의인과 악자를 사정없이 섞어 먹는 합의로 인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악독한 무리들이며, 저희 혀는 두날 가진 날카로운 칼이니 의인을 비방하고 악자를 뽐낼 때 중상하는 혀, 사람의 피를 먹으려 하는 혀이며, 의인을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 자이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듯이 웅덩이를 파는 자들이다. 피가 많고 용맹스럽고 강하고 잔인하고 악독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수들에게 의인을 맡겨 두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사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려는 한 그대로 원수를 갚으십니다.

모르드개를 잡으려는 하만, 유대백성을 잡으려던

하만의 출도들, 다니엘을 잡으려던 간신배와 그 가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악인의 노력은 별 수 없이 꺾여집니다.

시 57:7~11

기도자의 결심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결심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니 찬송하겠다고 결심하였읍니다. 어떻게 찬송을 하는가 하면 ① 영혼의 찬송을 새벽부터 있는 재주 다 동원하여 만민 앞에서, 열국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기로 하였으며 ②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였읍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요 약하고 천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 주시니 찬송하며 ③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찬송하였읍니다. 한번 약속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만가지 어려움을 뚫으시고라도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 찬송하며 ④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읍니다. 다 알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살피 주시고 심판하시는 높으신 영광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했읍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고 낙심 원망하지 말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생활이 됩시다.

시 58:1~2

발악(發惡)을 꾸짖음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은 강포를 달아 주는 도다.』

인자들아(백성들아, 신하들아, 용사들아, 자식들아, 종교가들아) 너희가 당연히 할 일이 있거늘, 왕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왕에게 충성하여야 하겠거늘, 즉 공의에 입각하여 인정이나 권세,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공의를 따라 가야 하겠거늘, 자식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공경하여야 하겠거늘, 종교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을 지키고 나라에 충성하여야 하겠거늘 어찌하여 충고 한마디 못하고 입을 봉하고 잠잠하느냐? 안할 말 하는 자는 나쁘거니와 할 말을 안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 집권자는 공의를 따르고 정직하여야 되며 종교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 옳은 말 바로 해야 한다.

하나님도 있고 부모도, 나라도, 백성도 있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악을 만드는 조작자, 자기보다 나은 자 시기 모략 중상 압박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 뿐이니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처럼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합시다.

성 발렌타인의 날 소감

최 정 만집사

(대학부교사)

지난 2월 14일은 성 발렌타인의 순교기념일로서 서구에서는 젊은 청춘남녀들을 위해서 성대히 거행되는 축제일이다.

이 축제를 위해서 2월13일 밤부터 젊은이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름이 적힌 티켓을 돌려가면서 커플(짝)을 정하고 꽃, 사탕, 카드등을 정표로 서로 교환하고 여자들은 평소애 마음에 있던 남자에게 프로포즈(구애)를 하는데, 이 날만은 그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청년들의 그 뜨겁게 끓는 피는 정녕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찌니, 예수그리스께서 30대의 청년시기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요한 칼빈 선생도 27세의 약관에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쓰셨으며, 성 어거스틴도, 알렉산더도,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재들이 다 이 청년기에 세계 역사를 움직여 오지 아니하였던가! 78년도는 「세계 여성의 해」로, 또 79년은 「세계 어린이해」로 정하고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이해」와 「보호」운동을 전개하였음은 뜻있는 일이며, 이제 청년을 격려하고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한 「청년의 해」와 「청년의 날」로 정했으면 한다. 인구문제, 자원 및 공해문제와 함께 세계 3대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현상을 낳고 있는 이때 중현교회 청년부 주최로 「청년부홍회」를 가지게 됨은 실로 뜻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창 일할 수 있는 황금의 때를 그리스도 앞에 바치고자 함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보람된 일일 것이다. 한 사회의 여러 계층 중에서도 특히 청년 계층의 의식구조가 건전하고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된 사회는 앞날의 발전이 기약된 사회라 할 것이다.

과거의 우리 사회는 유교 봉건주의 인습때문에 충효만을 강요했지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here and now)에서 이해하여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미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 식의 당위성만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엄격한 도덕율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와 병행해서 청년의 특성을 이해해줄 줄 아는 아량이 먼저 필요하다. 국토의 면적과 인구에 비해 세계 어느곳 보다도 많은 순교자를 낸 이 땅에 「성 발렌타인 데이」와 같은 순교기념일을 겸한 청년축제를 두어 순교의 피를 기념하고, 노총각 노처녀를 위한 활짝 열린 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미우라 아야코의

「이 사랑 그 누가」를 읽고

김 수 진

(대학부 4년)

‘한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 주인공 노부오의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철로변에 무참히도 호트러진 피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못박히신 손과 발과 가시관 쓰신 머리로 부터 흘러내리는 피와 함께 그러나 한없이 자비롭고 서두르지 않는 평온한 얼굴과 함께 이 귀절이 아직도 나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맴돈다. 이 책은 평이한 단어와 가벼운 문장으로 눈부시고 화사한 감동을 안겨주는 미우라 아야코의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평이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강하게 알려주고, 조용한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 목표를 명백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주인공 ‘노부오’의 근본적인 삶과 죽음과 생명과 내세에 대한 자그마한 호기심이 점차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가는 계기들이 되어져서 무기력하고 안일하고 방관하는 생활로부터 좀 더 활기 있고 중심이 있는 생활로 되어지는 과정과 ‘페병’과 ‘카리에스’에다 절름발이 이기까지 하나 어떠한 외부적 환경에서도 내면의 청순함과 진실함과 명랑함을 잃지 않은 셈과 같은 영혼을 소유한 ‘후지코’라는 한 여성에 대한 노부오의 순수한 사랑은 눈물겹고 동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있는 인간 곧 우리들의 생명은 단지 낮이 오고 밤이 오듯, 살면 살다가 죽으면 죽어갈 뿐이나 그리스도와 의 만남-그 놀라운 만남이 있게 됨으로 생생한 하나의 의미가 되고, 창조가 되고 영원으로 연결되는 찬란한 삶으로 승화되는 것임을 느낀다. 노부오의 평이한(?) 성실한 삶 속에서의 그의 소박한 고백인 “나는 그날 그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해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것은 물론이지만 언제 어떤 순간에 나를 부르셔도 기꺼이 죽을수 있게끔 되고 싶다고 생각해요”라고 말을 기억하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커다란 빛을 반사하는 작은 거울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이 책을, 어떤 의미에서든 삶 자체에 대해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다. (시몬느 베이유의 ‘불꽃의 여자’와 함께.) 그리고 “장작은 한 개비 보다는 두개비가 더 잘 타지요. 우리들도 더 밝게 신앙의 불을 태우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것이랍니다.”라고 노부오의 말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책이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인도네시아 - 서만수 선교사

*작년은 9명의 원주민 전도인을 통해 137명의 결신자와 115명에게 세례를 베푼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고, 금년엔 3명 더 증파하여 모두 12명의 원주민전도인을 통한 정글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년엔 더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기도하자.

*다음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의 현황과 앞으로 선교방안에 대한 것을 질문식으로 요약한 것.

〈질문〉 선교의 제한을 표명한 시행령의 발표 시기는 언제인가?

〈답〉 1978년 8월 인도네시아 종교성장관의 시행령 발표와 금년 1월 9일 종교성과 내무부장관의 연서로 종교제한 활동에 대한 공동 발표문이 공포되었다.

〈질문〉 그 내용과 전망은?

〈답〉 그 내용은 “모든 선교사는 현지인을 자기와 같은 수준에 이르게 하도록 교육시키되 시행령이 발표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착수하여 2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국회에 상정되어 헌법화될 예정이라고 한다.

〈질문〉 본부의 대처방안과 향후 선교전략?

〈답〉 서만수 선교사님에게 “한국사람을 위한 한국목사의 비자신청을 통해 계속 체류토록 할 계획이고, 향후 인도네시아 선교는 선교사 입국이 불가능하므로 평신도 선교사(교사, 기술자등)의 파송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도 제목

1. 서선교사님 비자연장과 건강을 위해
2.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홍콩 - 홍종만 선교사

*홍콩한인교회소식

1. 공동의회에서 신년도 예산 수립함
2. 교회지원을 임명함: 집사 24명, 성가대원 17명, 주교교사 7명, 구역임원 13명.
3. 건축위원회 발족함
4. 홍콩체류 월납피난민을 위한 구제헌금 H. \$ 500과 홍익회에 H. \$ 5,378.⁰⁰을 발송함.
5. 인도네시아 선교헌금 H. \$ 2,909.⁰⁰ 송금
6. 육군사관학교전도비 H. \$ 1,000 발송

*기도 제목

1. 중국대륙선교 준비와 계획을 위해
2. 한인교회의 부흥을 위해

애 굽 - 이연호 선교사

1. 1979년 1월 애굽 문교부 고등교육국에서 선교사님의 노동및 거주허가 나옴.
2. 1979년 1월 애굽총회산하 신학교의 제 2 학기가 시작되어 강의하시고 있음
3. 금년들어 애굽주재 한국공관에 부흥이 일어남. 함영훈대사, 방유찬영사, 성낙민영사, 최중석영사, 김영석참사관, 전봉준영사, 차윤공보관 7가정이 결신하여 출석함

*기도 제목

1. 애굽선교의 정착이 되었으니 감사의 기도와 풍성한 전도열매가 맺어지도록
2. 신학교 강의를 통한 열매를 위하여
3. 애굽주재 한국공관의 다른 직원들이 결신하도록

서 독 - 육호기 선교사

1. 비스바덴한인교회 실행위원들이 특별 금식기도회를 1월 1일부터 5일까지 드림
 -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 2) 충성스런 일꾼이 되기 위하여
 - 3) 보다 넓고 좋은 예배처소를 위하여
2. 병원심방과 환자전도계획을 세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홍콩-충공간 열차편으로 성경반입이 무사통과되고 있다. 일명 “성경의 도로”라고 불리움〉

선교월보

*기도 제목

비스바덴과 뷔츠부룩한인교회 사이 왕복 거리는 400km이다. 비스바덴에서 오전 11시에 예배드리고, 뷔츠부룩에 가면 오후 4시에 예배 시작된다. 다시 비스바덴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된다. 육선교사님의 교통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자.

호 주 - 김태현선교사

1. 목사사택에 전화신설함 (288-6383)
2. 성가대원을 임명함 (10명)
3. 멜본한인교회주소: 김태현선교사
8 Joffre Street, Burwood 3125
Victoria, AUSTRALIA

*기도 제목

1.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2. 김선교사님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일 본 -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1. 본국에서 휴가지냄 ('78. 12. 25 ~ '79. 1. 17)
2. 환자 및 개인, 대합실전도 계속중
3. 외과 간호원 다카나미양 결신
4. 차운순여사의 "생명수"와 전도지를 북해도 내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배포함
5. 사모님(이권사) 3월 1일 출국 합류함

*기도 제목

1. 유선교사님 내외분께 계속 전도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2. 결신하고 교회나오기를 주저하는 심령을 위하여

서 독 - 박용삼 평신도 선교사

박선교사님은 튜빙겐대학에서 박사과정 연구로 일반언어학을 전공하면서 부전공인 선교신학을 유명한 선교신학자 바이엘하우스 박사 밑에서 연구, 1981년도 4월에 마칠 예정이다. "일반언어학" 연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과 글을 통해 말씀을 주신 점을 생각할 때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복음 전달을 위해 세계 인종의 말과 글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신학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문이 된다. 연구가 끝나시는 대로 신학교에서 교육선교를 하실 계획이다.

*기도 제목

1. 박선교사님의 연구과정이 속히 잘 마쳐질 수 있도록
2.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

아르헨티나 - 백성룡선교사

*아르헨티나 선교연혁 요약

1. 1976. 11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재아중앙교회에 평신도선교사 신동수집사를 파송, 선교활동을 착수하다.
2. 1978. 2 개인사정으로 선교를 잠시 중단.
3. 1978. 10. 재아중앙교회에 담임교역자를 파송하기로 당회 결의하고, 11월에 당회에서 그 후임자로 백성룡목사님을 내정함
4. 1979. 2. 24 재아중앙교회로부터 백목사님 초청장이 래도하여 현재 출국 수속 중에 있다. 4월 중으로 남미선교사 자격으로 파송될 예정이다.

*기도 제목

1. 백목사님의 출국수속이 속히 잘 되도록
2. 앞으로 선교계획은 다음과 같으니 위해서 기도하자
 - 1) 재아중앙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2) 재아 한인교포를 위한 전도사업과 대민 사업을 위하여
 - 3) 재아중앙교회가 남미선교의 센타가 되도록 - 남미원주민을 선발, 한국에 초청 훈련하여 다시 파송할 계획

선교본부 - 총현교회 해외복음선교회

*기도 제목

1. 각선교사들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잘 되도록
2. 선교회 구성(실행위원회의 임원 및 회원 그리고 연구위원)들을 위해
3. 선교회원의 확장과 선교사업의 확대를 위해 - 10년내에 100명의 선교사 파송계획
4. 선교후보자들의 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선교주일학교를 위하여
5. 선교훈련생들을 위한 선교센타의 건립을 위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 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오늘의 우리기도

1. 금년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새성전 건축**에 쏟기를 원합니다. 하루 속히 아름다운 성전을 이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2.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 홍콩의 홍종만 선교사, 애굽의 이연호 선교사, 서독의 육호기·박용삼 선교사, 호주의 김태현 선교사, 일본의 유병세 선교사의 **모든 복음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 합니다. 이복에 있는 우리 동포들, 무너진 제단들을 하루속히 일으켜지는 축복을 주옵소서.
3.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에게 감절의 영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 본 교인들을 먹이고 키우는데 영육간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4. 장로와 권사, 집사, 구역장, 권찰, 성가대원들이 자신의 맡은 바 직책에 **충성**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5. **15부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명실공히 천국일꾼으로 키워지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머더메 가르치 예수님의 사랑들로 부족함이 없게 세워 주옵소서.
6.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움 받은 주님의 종들과 **한국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사 5천만 우리 겨레가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물 말은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알게 하옵시고 우리나라 산업의 계속적인 부흥 발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7. **공산치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과 **세계의 모든 교회**위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공산세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자유로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옵소서. 자유진영의 정치, 경제, 사회지도자들이 자기의 책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이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 당하게 하옵소서

1 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제 1 지구

- 동대문구역 / 백남열 종로구연자동75, 동산빌딩503호
- 광희② " / 박서숙
- 길음 " / 이미영 성북구미아2동1274-37, 5동5반
- 월곡 " / 김양숙 성북구하월곡동90-38, 15동6반
- 삼선 " / 이성윤 성북구돈암동511-18, 9동2반
- 동소문 " / 박은숙 성북구돈암2동524-5
- 장동 " / 이복순 도봉구창동657-48, 6동2반
- 도봉② " / 김향식 도봉구방학동260-14
- 송인① " / 오세익 동대문구신설동92-14, 5동4반
- 미아① " / 이완호 도봉구미아3동미아Apt. 8동503호
- 삼양② " / 진경희 도봉구미아3동302-52

○ 제 2 지구

- 면목②구역 / 유재선 동대문구면목2동177-34, 31동4반
- 중곡② " / 정관국
- 풍납 " / 박대용
- " " / 서주광
- 구의구역 / 김숙희
- 군자구역 / 손형준
- " " / 허연경
- 태릉구역 / 남삼조 경기도양주군구리읍인창2리312번지
- " " / 이용선 경기도양주군금곡2리642
- 신당①구역 / 표장근 중구신당동304-107, 13동1반
- 구의② " / 박진혜 성동구구의동241-2, 8동1반
- 망우구역 / 장한섭 동대문구망우동489-18
- 중화 " / 김지연 동대문구면목2동183-59
- 행당 " / 박옥순
- 전농 " / 김영택 동대문구전농3동20-180
- 홍인①구역 / 박명희 중구신당동41-313, 8동4반

○ 제 3 지구

- 묵정①구역 / 이원옥
- 강남② " / 신진숙 용산구 이태원로2가452-14, 1동3반
- 이태원 " " 오원목 강남구영동개나리Apt. 31동705호
- 도곡② " / 황인옥 강남구신사동433설악Apt. 4동602호
- 강남② " / 김명배 강남구잠실시영Apt. 95동210호
- 잠실④ " / 김득실 강남구반포동주공3단지309동501호
- 강남② " / 문인자 성동구옥수1동424-151, 6동2반
- 옥수① " / 백종현
- 응봉 " / 김원석
- 한남 " / 박용우 용산구한남동1-220, 2동4반
- 청담① " / 박만숙 강남구청담동목련Apt. 3동504호
- 강남① " / 정병천 강남구서초동산193-3극동Apt. 8동106
- 도곡② " / 김순자 강남구도곡동신도곡Apt. 가동203호

○ 4 지구

- 필동③구역 / 김달수 중구필동3가17-4
- 필동① " / 황선희
- 사 당 " / 최용준
- 회 현 " " 황문례 중구남대문로32, 백합사
- " " / 최후숙 중구남대문로3가32, 백합사
- 봉천① " / 이종연 관악구봉천7동177-1
- 엄 리 " / 김경환
- 마 포 " / 이명영 마포구아현1동415-4, 37동3반
- 엄 리 " / 전인주 마포구아현동342-3, 9동4반
- 신 길 " / 이미라 관악구신림4동12-1, 27동4반
- 용 산 " / 김숙예 용산구동부이촌동300-11왕궁 Apt. 4동408
- 인현② " / 김점섭 중구충모로4가147

○ 제 5 지구

- 을지②구역 / 김영희 중구수교동30번지 태양빌딩옥상
- 호 자 " / 강신일 종로구내수동98-2
- 서대문② " / 조희자 중구충립동64 -1 63
- 갈 현 " / 박종희 서대문구불광동445-235, 19동6반
- 신 촌 " / 김학태
- 개 봉 " / 정홍준
- " " / 유현정
- 중 부 " / 홍준유 중구예관동
- 호 자 " / 정정식 종로구누장동148-7, 3-4
- 을지① " / 최함식
- 서대문 " / 조희자
- 중 부 " / 유덕일 중구을지로4가170, 6동4반
- 가 회 " / 박참교
- 역촌② " // 윤병용 서대문구갈현동510-17, 5동3반
- 화곡② " / 김만섭 강서구화곡동102-218, 4동1반

*주소가 없는 교우는 등록은 했으나 아직 교적 정리가 안된 사람입니다. 각 구역에서는 속히 확인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축하합니다 (2월중 결혼)**

- 조성수군 / 케이성가대원, 8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최수경양 / 최임상집사, 신명회집사 3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순복음 교회당에서.
- 진주화군과 이단양 / 김성숙집사 2녀, 12일 오후 2시 타워호텔에서
- 김재혁군 / 김익환씨 2남과 강옥희양, 17일 12시 타워호텔에서.
- 길성남군 / 김현식씨, 김애순권사 2남, 20일 오후 2시 행복예식장에서
- 박성명군 / 케이성가대원, 22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이선민군 / 이상덕집사 장남과 임정숙양 / 이옥란씨 3녀 3월 1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위로드립니다 (2월중 별세)**

- 오춘매씨 / 남은균씨, 황성혜집사 모친 21일 별세 23일 장례

구역장 수첩②

구역장의 실무교육 내용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 회장)

1. 구역장의 위치와 사명

- 1) 구역장은 그 구역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며 행정 책임자이다.
- 2) 구역원의 신앙 성장을 돕고 천국 건설과 교회 봉사를 장려한다.
- 3) 구역원의 사정을 항상 파악하고 중요한 것은 수시로 담당교역자에게 보고한다.
- 4) 매월 정기 권찰회에 꼭 꼭 참석하여 구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교회 발전과 구역 운영에 대한 지도를 받고 적극 협력한다.
- 5) 구역 집회를 인도하며, 구역원의 단합과 화평을 도모하고 구역발전과 교회부흥,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

2. 구역 행정과 구역 보고서 작성요령

구역 행정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한다. 구역 보고서는 매월 권찰회 때마다 꼭 제출해야 한다. 작성 요령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서 하면 된다.

- ① 구역 현재 인원보고와 그 내용보고 ② 심방자 보고 ③ 구역집회보고 ④ 기타보고

3. 구역집회와 인도하는 방법

- 1) 장소 : 각가정 윤번으로 순회
- 2) 사회 : 구역장이 한다.
- 3) 기도 : 구역원이 돌아가면서 한다.
- 4) 강사 : 구역장 또는 구역강사가 인도한다.
- 5) 공과 : 교회에서 정해주는 공과 순서대로 강의한다. (설교는 따로 안한다.)
- 6) 집회인원보고 : 자기 구역 참석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한다.

꼭 유의할 것은 구역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인 회중과 그 가정에 신령한 유익과 은혜가 되어야 하며 성도간의 친교가 잘 되어야 한다. 구역집회에 담당장로나 본교회 교역자가 참석했을 때는 으레히 사회, 기도, 강의 등을 부탁하며 인도하시도록 함이 옳다. 가급적이면 전체 집회시간을 1시간 넘지 않도록 피차 노력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구역공과

...지난해부터 구역 예배 시간은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시에 사용하는 성경공부 교재인 이 구역
...공과는 7년 과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제17과 유월절

본문 : 출12장 - 13장 16절

읽을 말씀 : 출12 : 1-28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잡은 유월절 양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 사실을 세례요한이 잘 언급하고 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사도 바울은 더욱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전 5:7) (참고, 례 5:6-10)

1. 흠 없는 어린 양 (1-7)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5절)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규정된 모든 제물은 잡이나 흠이 없도록 되어 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찌니라.” (레 1:3) (레 1:10 3:1, 6, 4:3, 23, 32, 5:15, 18, 6:6, 9:2-3 등)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무서운 행위요 (말 1:6-14) 악한 행위다. (말 1:8)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 (말 4:1-9, 례 26:14-39) 밖에 없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건져주시길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이시다. (히 4:15, 7:26, 뵤전 1:19) 허물되고 티가 있는 자는 결코 죄인을 건질 수가 없다.

유월절에 쓰여진 어린 양은 출애굽하여 새로운 삶을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오직 어린 양의 피뿐이었다.

죄의 값으로 죽을 인생들이 (롬 6:23) 죽음의 화살을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를 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뿌림 받은 자

만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유월 (踰越) 되어 진다.

2. 양의 고기를 먹어라 (8-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것은 단순한 식사로서 보다는 여행을 떠났는데 필요한 것으로 준비시킨 것이다.

성도는 약속된 나라를 향해 가는 여행자이다. 그 여행 길이 길든지 짧을지 모르나 모든 여행자에게는 힘을 돌출 양식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성을 향해 걸 떠난 성도들에게 있어선 안될 영적 양식이다. (요 6:51-59)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양식 (요 6:53) 이요, 성도를 부활케 하시는 양식 (요 6:54) 이요, 성도를 영생케 하시는 양식 (요 6:58) 이요, 그를 먹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요 6:56, 15:4, 7)

3. 누룩을 제하라 (15-20)

하나님은 어린 양의 고기 뿐만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시며, 누룩의 흔적까지도 없애라고 명령하신다. 만약 누룩을 넣은 떡을 먹는 자가 있으면 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다.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시는가? 누룩은 옛 사람의 생활습관이고 사악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누룩을 없애 한다는 것은 옛 생활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함이다.

누룩은 떡에 맛을 주지만 누룩 때문에 떡에 부피를 더 빠르게 가져 온다. 처음에는 속으로 스며들지만 나중에는 떡 온 덩어리에 퍼져 부풀게 한다. 죄악은 바로 누룩과 같다. 누룩을 제하듯 우리 개인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죄악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옛 사람의 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갈 5:19-21)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 (수 7:1-26)

성도는 옛 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롬 13:11-14, 엠 4:22-24, 엠 5:8-10) 죄악과는 피흘리기까지 (히 12:4) 싸워 이겨야 한다.

구역예배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모입니다. 또한 7, 8월과 12...

1·2월은 모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구역예배는 1년에...

15~16회 드리게 됩니다. 각 구역에서는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며 모여 성경 공부에 열심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공과

제18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본문 : 출13 : 17-22

읽을말씀 : 출13 : 17-22

처음으로 낯선 곳을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다. 여행할 곳을 자세히 그려놓은 지도와 나침반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안내자를 만나면 더욱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아무도 가보지 못한 여행길을 떠났다. 그들에게 훌륭한 안내자가 필요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천성을 향해 걸 가는 나그네들이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떠난 성도들에게도 역시 안내자가 필요하다.

1.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가 되심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지옥 같이 흑독하게 고생하던 저주스런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려면 실족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도록 훌륭한 안내자가 있어야 했다. 그들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일 그들이 안내자가 없이 제멋대로 북쪽 길로 갔다면 사막에 도달했을 것이다. 작고 왜소한 관목 밖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끝없는 사막, 언덕과 폭 패인 계곡, 그리고 가도가도 끝 없는 모래 뿐이었을 것이다.

만일 남쪽으로 행했다면 그들은 험악한 산, 화강암으로 된 울퉁불퉁한 바위틈으로 가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은혜롭게도 이스라엘의 안내자는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시매” (13 : 18)

우리 성도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시 77 : 20 78 : 52)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사막의 움푹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에 월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시 23 : 1~6)

우리의 인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행하시는 (13 : 21)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나가면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히 12 : 2) 만 바라보고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2.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밝은 낮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밤중에도 인도하셨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13 : 21~22, 시 78 : 14)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하는 길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거운 기온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낮에는 태우는 듯한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려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취 주셨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인도해 주실 때, 성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영광스런 밝은 낮에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패하고 낙심하는 비참한 어두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과연 하나님은 낮의 해가 주의 백성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에 달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며, 그들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신다. (시 121 : 6~8)

3.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삭막한 광야라고, 요단강이 범람했다고, 강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다고 중도에서 그만 두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한다고 해서 인도하시기를 그치지 않고 저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기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13 : 22)

성도들이 곤고한 인생길을 다 지나고 참된 가나안 새 예루살렘성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다. (마 28 : 20)

춘기성례식 거행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갖는 성례식중 춘기 성례식이 오는 4월 5~8일까지 열린다. 성례식에는 문답과 세례와 성찬예식으로 나뉘는데 춘기 성례식

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답 : 4월 5일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
4월 6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2. 세례식 : 4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3. 성찬예식 : 4월 8일 I, II
III, IV부 예배시에

4. 문답의 자격

- ① 학습 : 교회출석하신지 6개월 이상된 분으로 만14세 이상
- ② 세례 : 학습 후 6개월 이상된 분
- ③ 입교 : 유아세례 받으신 분으로 만15세 이상된 분.
- ④ 유아세례 : 만 2세 미만의 아기로 부모의 신앙적 합의자.

또한 문답자를 위하여 학습 세례문답 공부를 오늘 4월 2,3일 오후 7시부터 교회에서 있다.

백성롱목사 선교사로

당회는 백성롱목사를 주아르헨티나 선교사로 정식 파송하기로 결정했다. 백성롱목사는 아르헨티나의 제아중앙교회에서 담임목사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에 나아가 우리교회에서 파송하는 정식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인도네시아, 홍콩, 애굽, 서독, 호주에 이어 6번째의 정식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다. 백성롱목사는 모든 수속이 끝나는 대로 곧 출국, 임지로 갈 것이다.

	남	여	계
중등반	8	39	47
연구반	4	11	15
보통반	8	45	53
계	20	95	115



(성경학원개강예배)

춘계 대심방 시작

춘계 대심방이 지난 3월 12일부터 각지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우리 교회에서 춘·추로 일년에 2차례에 걸쳐 전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는 대심방은 오는 6월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변경된 심방팀(원·부)에 의해 심방하게 된다.

이번 춘계대심방의 표어는 시편 28:7절, 찬송은 253장이다.

성경학원 개강

성경학원은 지난 3월 12일(월) 오후 7시 유년부실에서 개강 예배를 드림으로 79년도 제1학기를 시작했다. 금번 학기에는 특별히 중등반이 신설되어 이 재를 떠났는데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다음과 같다.

주교에 부지도 임명

당회는 공식중이던 주일학교부지도를 악래와 같이 각각 임명했다

- 고등부부지도 - 장주진(남)
김철생(여)
- 산전부부지도 - 유재일(남)
현정남(여)

노인 심방 마쳐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초에 70세 이상되는 노인들을 심방하는 일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주로 노년부 담당 제도 교역자(김재창 목사·박현모전도사)가 실시한 금년도 노인 심방은 제1월 9일부터 2월 23일까지(총 28일) 주재설교로 시편 146:5, 찬송은 356장이었다. 각 연형별 노인심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연령	구분	남	여	계
71 ~ 79		90	179	269
80 ~ 89		16	44	60
90 ~ 100		2	4	6
계		108	227	335

개척지역 선정

전도위원회에서는 금년도의 중점사업으로 강원도지방의 개척전도를 실시키로 하고 지역을 선정 중 정선군 임계면의 고양 교회와 인제군 기린면의 서리교회를 지교회로 결정하였다. 또한 새로 개척할 곳을 선정하여 강원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전도할 예정이다.

당회장 비서 결정

교회는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과중한 업무와 연구, 계획면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비서진을 구성하기로 하고 그 인선을 하였다. 현재 대학부 지도교역자인 윤형철 강도사와 이 손전도사를 각각 당회장 비서로 결정하였는데 윤형철 강도사는 특히 해외선교분야를 위해 당회장을 보좌할 것이다.

윤형철 강도사의 비서 결정으로 공백이 된 구역권찰회의 제5지구 심방담당으로는 현재 중등부

지도교역자 남성호 전도사를 전임 전도사로 발령하여 이를 담당토록 했다.

구역권찰회 인사이동

구역권찰회는 다음과 같이 구역의 인사이동을 실시했고 또한 구역명을 변경했다.

1. 구역명 변경

- 이촌 1 구를 이촌구역으로
- 이촌 2 구를 용문구역으로

2. 구역장 임명

- 용암 1 구역장 한영식 집사를 면하고 안차녀 권사로 명
- 서교구역장 조경옥 집사를 면하고 김경숙 권사로 명

3. 권찰보선

- 시흥구역 - 신 성
- 청구역 - 김복자
- 도곡 1 구역 - 유효순
- 서강구역 - 심정희

제삼성가대 발족

지난 3월 첫주(4일)부터 4부 예배시간이 오후 2시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4부 예배 성가를 담당하던 대학부성가대가 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자 교회에서는 제삼성가대를 발족키로 결정하고 대원을 모집하여 새로운 성가대를 발족했다. 주로 4부 예배 성가를 담당하게 된 제삼성가대는 대장에 이훈집사, 지휘에 김성호선생, 반주에 윤경숙선생이 맡았다.

이로써 우리교회에는 본 성가대로 4개 성가대가 있게 된다. 각 성가대의 예배 담당은 다음과 같다.

- 제1성가대 - 3부 예배, 매월 첫주 저녁예배
- 제2성가대 - 1부 예배, 매월 둘째주 저녁예배
- 제3성가대 - 4부 예배
- 여성성가대 - 2부 예배

각 종 통계

1979. 2. 4 (매월첫주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 교회버스편**
 - 매주 일 저녁예배 후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 번을 거셔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남	여	계	총세대수 2,979	
집	예배	I부	138	246	384	신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어린이새신자부	I 30	23	53	교인
		장년새신자부	II 28	38	66	
		영아부	89	86	175	
		유치부	93	103	196	
		유년부	143	136	282	
		초등부	183	171	354	
		중등부	156	138	294	
		고등부	158	156	314	
		대학부	80	105	185	
		청년부	74	81	155	
교	학	장년부	26	331	357	교인
		노년부	26	78	104	
		산전교육부	24	79	103	
		새가정부	16	10	26	
		선교부	39	64	103	
		계	2,662	4,532	7,194	
집	예배	I부	138	246	384	신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II부			441	998	1,439	
III부			459	725	1,184	
IV부			115	232	347	
주일		저녁	200	343	347	집
		삼일	141	389	530	
회		예배	I부	138	246	384

3 월의 행사



편집하고 나서

☞ 새 봄, 새 학기를 맞으며 「주일 학교 특집」을 내놓는다.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말할 하지만 과연 백년을 내다보며 교육을 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볼 문제다. 교육의 문제는 어느 개인, 어느 가정이건 다 관계가 있는 일이면서도 큰 관심을 쏟아 오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계속 월간충현에서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그 공과(功過)는 나중에 미루더라도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문제점이 뚜렷이 부각된 점만 해도 크게 다행한 일이다. 교육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계속 고심하며 애를 쓰고 있지만 어찌 주교교육이 교육위원회의 일일뿐인가?

* 1979년 월간충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제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테용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테용 고제원

- 4 일 정기제직회
남전도회 · 여전도회 · 권사회 임원회
산업전도회 월례회 · 재정 위원회
교사헌신예배 · 지도자양성부 제14기 수료식
- 5 ~ 8 일 청년부총회
- 8 일 3월 철야기도회
- 11 일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중등부 헌신예배
월간충현 편집위원회 월례회
- 12 일 1979년도 제 1 학기 성경학원 개강
- 14 일 여전도회 임원 철야기도회
- 18 일 여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선교실행위원회
- 19 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 20 일 권사회 철야기도회
- 25 일 구역권찰회 · 전도위원회
산업전도회 임원회 · 고등부 헌신예배
- 26 일 건축위원회 월례회의
- 27 일 정기당회

모두가 주교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마련한 좌담회는 예전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본다.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서로 생각해 보았다. 정말 교육은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 질수 있다.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교육에 대해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한다.

☞ 3.1절 60주년을 맞는 금년에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의 입장을 알아 보고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사회상을 이를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도록 김차생 장로님이 특별한 원고를 써 주셨다. 오늘날과 비교하며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월 간 충 현

3월호

제 7 권 통권 제63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3월 25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 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7-9937 · 9738

* 이렇게 답한다 *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가 가능한가?

내세에서의 전도는 있을수 없어

김 재 창 목사

(부목사·구역권장회 회장)

문 /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도가 가능한지요?



이 성경 구절은 옛날부터 오해하기 쉽고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로 알려져 내려오고 있다. 또 이 성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연옥설의 근거로 삼고 있는 가장 유력한 구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셨던 일이 있다는 해석이나 주장은 지옥에도 전도가 가능한 뿐 아니라 마침내는 지옥에 간 사람일찌라도 거기서 전도를 받고 회개하면 구원받고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주장임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적이 못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지옥에 가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죽어가던 행악자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보아 그는 결코 지옥에 가신 일이 없이 곧바로 낙원,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둘째 이유는, 성경 원어에 일반적으로 쓰는 전도 용어가 아니고 선포하는 의미의 특수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유는, 그 다음 20절에 나오는 노아시대 사람만이 전도 받을 대상이라고 지목된 것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일반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대로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하셨다면 구태여 사천년전의 노아시대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으셨을 리가 없지 않은가? 지옥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노아시대에 순종치 않던 그 사람들만을 여기 거론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특별히 노아시대 순종치 않던 자들에게 승리의 개선을 선포하는 뜻이 있으며,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 영들은 다시 구

원 받을 가망이 전혀 없다는 경고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주신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세째는, 노아시대의 물의 심판도 엄격하였다면 앞으로 닥아올 불의 심판이 얼마나 더 엄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미리 준비하도록 교훈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노아 홍수로 인한 멸망 받은 과거의 세계와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 받을 영광된 세계를 대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누구든지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순종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도무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는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내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도 코웃음치며 썩지 않던 자들은 죽는 그 순간에 사탄에게 끌려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거기에 보면, 내세에는 이사나 이말이 불가능한 곳이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이 다시 없는 완벽한 두 세계인 것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역기에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눅 16:26)”고 하신 말씀에 이어, 율부(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지옥은 역시 전도가 통하지 않는 세계요, 전당에 갇힌 사람이 다시 와서 전도를 해도 이 세상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딸은 충현교회 초등부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는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석원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200여명의 어린이들은 재미있고 꿀보다 더 단 아버지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니까 꼭 우리의 같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교인들 수가 많은데 비해 예배당이 너무 좁아요. 회회할 장소가 없어서 어린이 회의를 하는데 세번이나 장소를 옮겨다니기도 하고 저녁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 때도 있어요. 지금 예배당을 지으려고 헌금하고 있는데 빨리 예배당이 완성되어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천국일꾼을 많이 키워서 세계 방방곡곡에까지 선교사님을 보내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 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많은 나라 중에서 특히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의 선교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의 딸 양선 올림

